

이다.<sup>6)</sup>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새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회개의 구체적 행위는 무엇인가?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회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데 대하여 세례자 요한은 “속옷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루가 3, 11)고 지시한다.<sup>7)</sup> 이것은 위에서 예수가 말했던 하느님 나라의 내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시켜볼 때 이것은 회개의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사회의 불의를 파헤치려는 근본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기득권에 대한 부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는 다른 차원에서 회개의 길을 제시한다.

### 땅은 하느님의 것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 25, 23). 땅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사상은 구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모세는 히브리를 해방하기 위해 파라오와 결전을 벌일 때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드리리다”(출애 9, 29)라고 말한다. 파라오는 호루스

6) 셋째 마당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참조.

7) 세례자 요한의 지시는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예컨대 삼상 10, 2), 자기 영역을 넘지 않은 것이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I. H. Marshall, *a.a.O.*, 해당부분 참조/한역본 179면). 그러나 11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지시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Horus)라는 창조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현존하는 신<sup>8)</sup>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에집트를 통치하고 군림하였다. 그런데 그 땅도 야훼의 것이라는 것이다. 어찌 그 땅을 점유하고 전제(專制)한다고 그 땅이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시나이 산에서 야훼는 히브리에게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에집트에서 해방하였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출애 19, 5)고 묻는다. 그러므로 야훼 자신이 각 민족에게 필요한 직책을 맡긴다고 한다.

신명기학과에게도 이 같은 신념은 일관되어 있다. “그렇다. 하늘과 하늘 위의 또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것 모두가 너희 야훼 하느님의 것이다”(신명 10, 14). 이것은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했던 요시아왕의 신앙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빌론까지 포함한 온 땅, 아니 하늘까지도 하느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시인은 이렇게 하느님의 주장을 노래한다.

숲속의 못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시편 50, 10~12).

땅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 위의 모든 생물이 하느님의 것인 것처럼,

8) ANET,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ons to the Old Testament*), ed. J. B. Pritchard(2. Aufl. 1955), pp. 14~15.

하늘도 하느님의 것이니 그 안에서 날아다니는 것도 모두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이다(시편 24, 1~2 참조). 역대기사가는 이렇게 고백한다.

야훼 하느님은 위대하시오 힘있으시어 존귀와 영화가 빛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느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시어 다스리실 이 야훼뿐이십니다. 부귀영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역사 29, 11~12).

왜 이처럼 이 땅이 하느님의 것이라고, 아니 하늘도 그리고 바다도(시편 95, 4~5) 하느님의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창조주인 한 당연한 일 아닌가? 그것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이 땅을 사령화(私領化)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을 겨냥한 말이다. 벌써 그 땅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강한 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침범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경이 생기고 한 나라 안에 빈부의 차가 생기며, 계급이 발생하여 상류계급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류계급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아직 땅의 사유화를 정당한 것으로 알던 때인데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주장은 놀랍다. 그것은 땅의 국경선은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늘과 바다의 사유화까지 주장하여 전쟁을 계속하는 오늘의 문제를 이미 예견하여 주장한 것이 된다.

땅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땅에 대한 영구한 사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사람은 식객처럼 자기에게 허락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날까지 경작할 뿐이다. ‘하느님의 것’이라는 주장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땅에 대한 공(公)개념이다. 아무도 사유화할 수 없는 것,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소속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한, 이것은 사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기득권(가령 땅의 소유)이 창조질서에 속한다고 하는 주장은 창조설을 왜곡하는 것이다.<sup>9)</sup>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이 주장의 반복은 공이 사유화로 침범되어 기득권으로 고집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이른바 죄악은 바로 하느님의 것 즉 공을 사유화한 데서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을 공으로 돌리는 행위일 것이다.

### 물(物)의 사유화에서 해방

이제 예수의 행태에 눈을 돌려보자.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점유할 듯이 기세를 부릴 때다. 이 신흥세력은 회람세력에 대치된 것이다. 저들은 군사력으로 점유한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하고 그 안의 모든 것,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자기들 것으로 치부하여 마음대로 혹사하였다. 이런 판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균형을 깨뜨린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편에 가까이 서는 자들은 소유권을 분배받는다. 따라서 권력과 경제에서 계급이 생긴다. 팔레스틴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갈릴래아 지방은 특히 이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쟁탈전에 시달린 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가, 신흥세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주인이 바뀌어 비리가 난무하는 현상이었다.<sup>10)</sup> 로마가 새 주인

9) 비록 하느님이 창조주라고 해도 일단 만들어진 것은 모두 공이다. 공을 공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하느님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계약관계와 상통한다.

10) 넷째 마당 ‘갈릴래아로’를 참조.